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소위 통과 환영”



“광주군공항 이전 가능성 한층 높아져...안정 추진” “본회의 통과 위해 정치권·대구시와 긴밀히 협조”

강기정 광주시장은 5일 “광주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주특별법)이 이날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며 “광주군공항 이전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에서 150만 광주시민과 함께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실행 단계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광주시는 국가 주도로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그 일환으로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을 제정하는 데 대구시와 상호 협력하기로 했으며, 2022년 11월에는 달빛동맹 협약도 체결했다. 국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런 노력들이 모여 이날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광주특별법에는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이전 사업(새로운 군공항 건설)과 이전지역에 대해 국가가 SOCA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담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광주시와 이전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 특별법으로 광주군공항 이전사업은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장기간이 소요되고 초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어려움이 해결돼 군공항 이전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사업대행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 “이전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유치 의향을 더욱 촉진하는 등 향후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 일정에 한층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법안의 최종 통과까지는 아직 몇 걸음이 더 남았다. 계속해서 광주특별법과 대구특별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 특별법은 이전지역 국비지원 뿐만 아니라 종전지역인 광주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자구역·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등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광주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전부지 또한 지원이 크다는 게 광주 특별법의 핵심중 하나다.

김재환기자

“학원을 영어유치원으로 불법홍보”...광주시교육청 특별점검

학벌없는시민모임 “11개 학원, 명칭 불법 사용”

광주의 한 교육단체가 일부 영어학원의 ‘유치원·캠퍼스·국제학교’ 명칭 사용은 불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시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5일 광주시교육청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 지역 학원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11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캠퍼스·국제학교’ 등

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학원이 ‘유치원’인 것처럼 속여 원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유아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유치원 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이며 과태료 500만원 이하, 경중에 따라 시설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시교육청 등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

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편법이 늘어나고 있다”며 “교육청이 단속을 통해 점검하고 강력하게 행정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오는 10일부터 전담팀을 구성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일명 영어유치원)에 대해 현장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3월 말 기준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영어학원 13개원이다.

이슬비기자

광양제철소, MZ 소통콘서트 ‘성황’



광양제철소(소장 이진수)가 최근 광양시 금호동 백운아트홀 야외테라스에서 ‘MZ 소통콘서트’를 열어 젊은 현장 직원과의 소통에 나섰다.

광양제철소가 MZ세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행사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로 개소 40년을 맞이하는 광양제철소는 젊은 세대들이 미래 40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인 만큼 진성성 있는 소통을 위해 아지타입

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 후배사원이 직책자의 멘토가 되어보는 ‘리버스 멘토링’, 기부와 체험 활동을 연계해 소통하는 ‘슬라임농사’ 등을 선보이며 조직문화 개선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이번 ‘MZ 소통콘서트’는 게임과 음악을 매개체로 삼아 진행된 것이 특징으로 이진수 광양제철소장과 약 200여 명의 젊은 직원들이 세대를 넘어 함께 호흡해 훈훈한 분위기를 자

젊은직원 200여 명 소통과 공감 게임·밴드공연...진솔한 대화도

아왔다.

1부에서는 제선부, 화성부, 제강부를 비롯한 10개의 부서가 구호를 외쳐라, 포스군 한 소절 노래자랑 등의 게임을 통해 협업하고 경쟁하기도 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이진수 광양제철소장과 격의 없는 소통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광양제철소 부문별로 순차적 진행되는 소규모 소통 콘서트인 만큼 젊은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서 펼쳐진 밴드공연과 함께 진행된 3부로는 행사는 마무리됐다.

이진수 광양제철소장은 “광양제철소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직원분들이 서로 소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주 광산구,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본격 운영

월봉서원·신창동 마한 유적지서 전통·현대 잇는 다채로운 체험 선포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월봉서원, 신창동 마한 유적지 등 주요 문화재의 문을 활짝 열고 다채로운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올해 월봉서원 프로그램 주제는 ‘서원 헤드 퀴어, 월봉(月峯)’이다. 고봉 기대승 선생의 정신을 품은 월봉서원을 아시아 서원의 중심으로 세우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조선시대 선비의 일상을 체험하는 선비의 하루 △달을 테마로 한 음악과 토크 ‘자경야담’ △고봉과 퇴계의 교류를 극화한 ‘월봉 로맨스’ △고풍격 인문 살롱 ‘살롱 드 월봉’ △고즈넉한 한옥에서 차문화를 체험하는 ‘다시(茶時) 카페·공방’ △450년 전 조선을 가상현실로 구현한 VR(가상현실) 체험 등을 마련했다.

첨단 무양서원에서는 ‘무양 in the city(무양인 더 시티)’를 슬로건으로 △고려시대 어의 최사전을 주제로 한 어의체험 사전약방문 △최부의 표해목을 재해석한 선비체험 무양 청년선비 △노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무양 배세별곡 등을 선보인다.

광산의 삼색가옥에서도 고택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열린다. 용아생가에서는 △강연·체험·공연이 있는 시인의 사계, △초등학생을 위한 시문학 교육 용아시인학교를 만나볼 수 있고, 김봉호 가옥에서는 △계절별 농가체험 ‘농가의 사계’를, 장덕동 근대한옥에서는 △청동기 집자리를 배경으로 한 고택체험 ‘고택의 사계’를 개최한다.

아시아 최대 농경 복합 유적지인 신창동 마한 유적지에서는 신창동 유물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만나볼 수 있다. △목기를 직접 만드는 목수공방 체험 ‘신창동 타인 캡슐을 열어라’ △선사시대 직조·그물짜기 체험 △그물공방, 박물관 해설 투어 △신창동 실험고고학 캠프, △화려광산 신창동 마을축제, △유아 흙 놀이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주시의 마한 역사문화센터 유적에 발맞춰 신창동 마한 유적지를 정비하고, 마한 역사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차별화된 ‘마한광산’ 브랜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형택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23.년 단 18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망 장 정 순 (470701-2550818)
 최 후 주 소 : 광주 동구 필문대로187번길 19-2, 2층(산수동)

위 망 장 정 순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3년 4월 6일

공 고 인 : 박종필, 박희영, 박종운.
 주 소 : 광주 동구 필문대로187번길 19-2, 2층(산수동)
 한정승인수리일 : 2023년 3월 31일
 공 고 기 간 : 2023. 4. 6 ~ 2023. 6. 6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셨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1분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전통진흥원
 KOTRA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원은 근무 시간에 얽매지 않는 퇴근이 행복
 생활 속의 여유를 살리는 기쁨과 근심 모두 행복입니다.

국민에게 상생의 기회를 제공합니다.